인 사 말

이 상 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풀무원 기술원장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일상으로 1년 이상을 보내고, 백신이 도입되고 집단면역이 생기면 1년 전처럼 자유로운 이동과 만남이 가능한 시대로 이제 복귀하는가 하는 기대감에도 잠시 젖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4차 대유행의 파도로 다시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 간 혹은 접촉물 매개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1년 여 동안 우리 주변과 일상 활동을 반강제적으로 제약하였습니다. 외부 식사가 줄어들고 가정 내 식사가 많아지면서 식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IT기기와 정보 공유에 익숙한 MZ세대는 식품의 정보와 표시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이 계층은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물, 사료, 공간을 덜 소비하고,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식물성 단백질에 관심을 가지고 비건과 선택적 채식을 표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늘어나면서 잔인한 도축보다는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역과 관련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을 찾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사람마다 모두 다른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앱으로 제공되는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배달을 중심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송 중에 발생하는 과다한 포장재 발생에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전례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노력들 또한 경주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사후 대응보다는 잠재적 위해의 사전 예방으로 관리의 촛점이 변동하고 있고, 원료 단계와 제조환경에서부터 분석과 판단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원료와 제조현장, 식품에서 기인되는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중 미생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조현장에서 생산과 점검에 있어서도 비대면, 비접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oT를 이용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격점검 기법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재활용과 생분해성 소재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자신과 미래의 후손을 고려하는 폭 넓은 사고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국민들과 소비자, 정책입안자, 행정부, 소비자 단체에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식품안전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의 올바른 목소리가 시야제로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사회를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